

Ⅲ. 주요 경제 현안

1. 99년도 경제운용 방향의 평가와 과제

- (내용) 99년 상반기에 재정지출, 하반기에 통화공급을 중심으로 총수요 확대를 통한 본격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실시하는 기본 원칙을 확정하였음
- (평가) 구조조정을 완수하고 적극적인 경기부양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, 재정적자 누적, 물가 상승, 실업문제 상존 등의 문제가 있음
- (과제) 정책 우선 순위의 명확한 설정 및 구체화, 경기 상황에 따른 적절한 정책 혼합이 바람직함

□ 99년 경제운용방향의 내용

- 정부는 올 연말까지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을 완료하고, 99년부터 총수요 확대를 통한 본격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실시하는 기본 원칙을 확정하였음
 - 상반기에는 재정지출 확대, 하반기에는 통화공급 확대로 경기 부양책 실시 방침
 - 특히 경기부양 효과가 큰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제한 완화,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폭 확대 등 실시할 예정
 -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실업자가 150만 명 이상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효율적인 고용대책 강구에도 주력
 - 또한 대외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한 외환 위기 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무역수지 흑자 목표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힘

<99년 경제 정책 방향의 주요 골자>

구 분	주요 내용
재정정책	- 상반기에 정부 투자사업 예산 30조 원의 70%를 집행 - 사회간접자본 투자 예산 12조 원을 1/4분기에 집중 투입
통화정책	- 하반기에 통화공급을 집중 확대 - 한국은행의 환매채(RP) 금리를 5%로 낮춰 시중금리 하락 유도
실업대책	-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실업자 흡수 - 공공근로사업을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강화 - 파견근로제도 확대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
대외 거래	- 경상수지 흑자 2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무역수지 흑자 300억 달러 목표 - 외자 유치는 직접투자와 주식투자를 합쳐 150억 달러 이상 목표

□ 평가

- 99년 경제운용방향은 구조조정을 완수하고 안정을 도모하며 적극적인 경기부양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

- 성격 및 목표
 - 정부는 대기업 구조조정이 일단락되고, 신용경색 완화 움직임 등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보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나타내고 있음

- 경제적 파급효과
 - 상반기동안 정부 사업예산의 70%를 지출한다고 밝히고 있어 3/4분기에는 내수 확대에 의한 경기호전이 예상되며,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4/4분기에는 4%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
 - 금리의 경우는 정부의 통화공급 확대로 하반기에는 하향 안정세가 예상됨
 - 환율의 경우는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다소 상승될 가능성이 있음

- 문제점
 - 사업 예산의 70%를 상반기에 투입할 경우 하반기의 재정자금의 부족으로 인한 정부 발주 공사의 중단 사태가 예견되며, 이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
 - 또한 경기가 호전되더라도 실업자가 감소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, 장기적으로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게 될 것임

□ 과제

- 1999년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 기반 마련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므로 향후 정책방향에 있어 우선 순위 설정을 명확히 하고 적절한 정책 혼합을 통해 1998년과 같은 정책의 실기 및 시행착오를 반복하여서는 안될 것임

- 정책 우선 순위 설정의 명확화 및 구체화

- 정부는 정책의 우선 순위를 경기 부양과 외환시장 안정에 둘 것임을 천명하고 있음
- 따라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전략인 수출 증대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
- 또한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2/4분기중 대규모 노사 분규가 발생될 경우 경기 회복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
 -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노동 유연성이 보장되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며, 동시에 노사 분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실업 대책이 요망됨
 -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실업 대책은 경기가 회복되어 고용의 흡수력이 증가 되는 것이니 만큼 경기 부양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함

- 정책 혼합(Policy Mix)의 방향

- 재정지출 확대 정책과 통화정책은 경기를 회복시킬 수는 있으나, 물가 상승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함
- 따라서 상반기=재정정책, 하반기=금융정책이라는 정책 방향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경기 상황에 대응하여 신축적이고 적절한 혼합이 필요함
- 또한 재정정책의 경우에도 전적으로 경기 회복을 재정지출의 확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, 장기적 성장력 배양을 위해 감세를 통한 기업의 설비 투자를 촉진시키는 조세정책과 적절하게 혼합하는 것이 바람직함

(곽 용 선 yskwak@hri.co.kr ☎724-4058)